

제목: "세상을 거뜰히 이기는 삶"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는 쉽게 세상에 끌려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감정의 굴곡도 경험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그렇게 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끌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 1) _____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 2) 더 이상 죄에 _____ 당하지 않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18절)
- 3) 하나님을 경험한 _____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19-20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신년감사	
선교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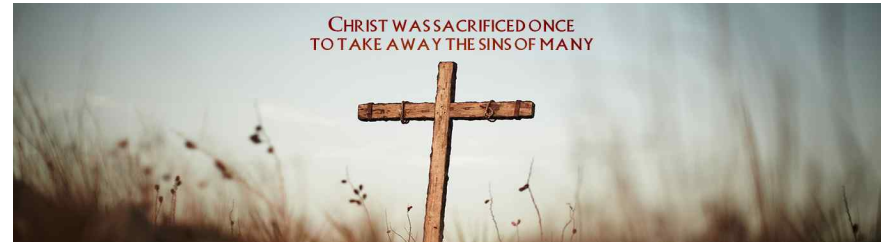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John 5: 1-9 신약 393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세상을 거뜰히 이기는 삶"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Victorious Life Rev. Kim
- 특별찬양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둘째딸의 갑작스런 방문)

갑작스런 아내의 사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동부에 있던 둘째 딸에게 두 주만 다녀갈 수 없겠는가? 문게 되었다. 둘째는 두 말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한 계획과 여행의 위험함을 뒤로하고 이를 뒤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했다. 실은 내가 도와도 될 수는 있었겠지만 아내에게는 정신적인 위로와 아울러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량을 담당해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둘째가 도착하자 아내는 아픈 것도 잊고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 때 한 가지는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정신적인 위로다.

딸아이는 며칠을 지나며 실질적인 도움도 흠뻑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그러다 돌아가야 할 2주가 거의 될 즈음 한 주를 더 있겠다고 하니 이제는 입이 열려서 닫히지를 않는다. 너무 고마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3주를 다 채우고 며칠 전 다시 동부로 돌아갔다. 새벽에 떠나는 둘째를 공항에서 열싸안으며 이제는 부모를 떠나 곁흔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며 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고 오히려 나와 내 아내를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다. 공항을 빠져 나오며 내 마음 한 구석에 기쁨과 아울러 그 딸이 이제는 내 품안에 있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삶을 찾아 훨훨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이전에는 어린아이였지만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 중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한 편으로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여 늘 회개가 끊이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겨우 듣고 겨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깨달고 당연히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회개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15절)라고 하신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며 당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 아이도 청년도 아닌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그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으시며 은혜로 흠뻑 젖어들게 하실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경 총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름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